

어린이 책꽂이

▲비밀요원 알렉스와 페니(제1권 이탈리아편) = 환상적인 모험과 재미있는 게임으로 세계 각국 역사·지리·문화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리즈. 학습만화와 백과사전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 (해냄주니어·1만1천원)

▲기절초풍 곤충기르기 = 곤충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뿐 아니라 싫어하는 어린이들까지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쉽고 재미있는 글과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선명하고 매력적인 그림을 통해 애완곤충을 기르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 (큰북·8천원)

▲삼총사 비밀찾기 = 알렉산드르 뒤마의 '삼총사'의 모험이야기를 만화로 재구성한 '만화로 보는 눈술 국어상식' 시리즈. 문학수사와 뒤마 삼총사 학교의 학생들이 우여곡절 끝에 친구가 되고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아이세움·8천500원)

▲한눈에 반한 우리 미술관 = 풍속화에서 사군자에 이르기까지 그림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와 선비정신, 그리고 고해학과 의상 등을 100가지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옛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꼬마 탐, 친구를 구하다 = 바다라는 특정 공간속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에피소드와 성공적인 모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상상해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그림책. 그림 중간 중간에 만화의 기본형식인 말풍선이 등장해 재미를 더한다. (시공주니어·8천500원)

승정원 일기는 날씨까지 기록했다

규장각에서 찾은... 신병주 지음

조선 숙종 때 세워진 규장각은 원래 역대 왕들의 시문이나 친필을 보관하던 장소였다. 규장각이 개혁정치의 산실이 된 것은 22대 왕인 정조가 집권하면서부터. 정조는 왕권강화와 개혁정치를 추진할 기관으로 규장각을 활용했다. 규장각에서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 대표적인 학자들이 방대한 문서와 책자를 수집, 연구함으로써 정조의 개혁정치를 뒷받침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 있는 규장각은 국보 및 보물을 포함한 26만여 점의 옛도서, 고문서, 고지도 등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 문화·역사 박물관이다.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15년 동안 연구해온 학예연구사 신병주씨가 규장각에 소장중인 대표적 명품을 간추려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와 같은 사료를 비롯해 국가의 주요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의궤, 고지도, 개인의 문집 등 방대한 자료들이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기록물이지만 사회, 문화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에 온 코끼리 이야기, 홍길동의 행적 등 흥미진진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타임캡슐이다. TV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인 '장금'은 중종실록에 6차례나 등장한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맡으면서 비서실 기능을 수행한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일자별로 기록한 책이다. '승정원 일기'는 왕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언행은 물론 날씨까지 자세히 수록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조선이 폐쇄적인 사회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외국과의 교류를 위한 외국어 학습제도 있었다. 중국어 화학교재인 '노걸대(老乞大)'는 세 명의 고려 상인이 교역을 위해 중국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국어 회화학습서다. '잡해신어(捷解新語)'는 역관들을 위한 일본어 교재다. 흔히 교과서에 등장하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한 장의 지도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대동여지도는 책자형태의 지도책 22권을 이어 펼쳐놓은 것이다. 규모로는 세로 6.7m, 가로 4m 크기의 우리나라 전도다. 의궤(儀軌)는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으로 통한다. 의궤는 왕의 혼인,



규장각은 조선시대 개혁정치를 추진하는 핵심 정치기관이자 도서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학문의 요람이었다. 김홍도의 '규장각도'.

세책 책봉, 왕실 장례, 궁궐 건축 등 왕실행사의 전과정을 그린 그림책이다. 단순한 한 장의 그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궤는 문자기록만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행사참가자, 절차, 물품 등이 등장하는 종합적인 행사보고서다. (책과함께·1만8천500원)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술 전문 지식에 엄마의 감정 옷투이

아이와 함께한 그림 공주형 지음

학교도 화랑 큐레이터이자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인 공주형이 따뜻한 미술평론서 '아이와 함께한 그림'을 출간했다. 두 딸의 엄마인 저자는 '일하면서 아이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킬 수 없어서 책을 썼다고 말한다. "현대미술 감의를 하다가, 희디한 이를 다 드러내고 웃는 중국 작가 작품 위로 깔깔대는 둘째 아이의 얼굴이 쏟아집니다. 콜록거리는 학생을 보며 '우리 수완이도 감기에 걸렸는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지킬 수 없는 원칙을 바꾸고 아이들을 글감으로 삼자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한다. 저자가 '엄마의 부재, 그 그리움의 시간에 대한 작은 변명'과도 같은 마음으로 쓴 이 책에는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엄마의 감정들이 인문학 또는 미술 관련 전문 지식에 녹아들어 있다. 큐레이터여서 볼 수 있는 그림의 의미와, 엄마여서 볼 수 있는 그림의 깊이가 독자의 그림 읽기를 더 풍부하고 가슴 따뜻하게 한다. (아트북스·1만6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술 전문 여행작가'가 쓴 전통 술 이야기

허시명의 주당천리 허시명 지음

"어쩌다 술향을 맡았다가 그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낯선 길을 보았고, 가까이 그 길 속으로 들어갔다. 그 길에는 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술에 인생을 건 장인이 있었고, 세월이 쌓아놓은 제조비법이 있었고, 곡식은 문화가 있었고, 휘청거리는 역사도 있었다." '술 전문 여행작가' 허시명씨가 세번째 술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허시명의 주당천리'는 저자가 전국의 술도가를 돌며 우리 전통 술의 역사와 각종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인물기행서다. 견훤과 왕건의 숨은 이야기가 담긴 안중의 고삼주, 당나라까지 소문난 신라 '화랑주', 빗물과 대나무통을 꽂아 술을 마신 고려의 문인 이제현 등 술에 얽힌 역사와 인물이 이야기가 흥미롭다. 계란과 참기름이 들어가는 제주 보양주인 보합주, 서민의 술 막걸리 등을 이야기할 때는 군침이 절로 돈다. 전국 31곳의 술도가 주소와 연락처를 수록했다. (예담·1만4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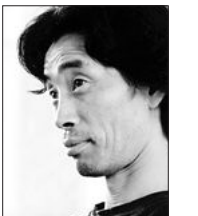
키이즈 '알게논의 무덤위에 한 송이 꽃'

지금으로부터 십육 년 전, 아주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던 한 권의 소설이 어쩌면 지금도 연극이라는 한 길을 가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우연은 지금 다시 필연으로 둔갑하여 내게 다가와 있다. 가난한 연극인의 삶이 두려워 서울로 취직을 하기 위해 올라갔을 때 대학동기와의 술자리가 있었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 그 친구가 읽어보라며 권한 책이 다니엘 키이즈의 '알게논의 무덤 위에 한 송이 꽃' (Flowers For Algenon) (일월서각)이란 소설이었다. 이 소설은 IQ 70의 빵가게 점원 찰리가 실험에 의해 천재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서 겸 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 빈민거리에서 사는 찰리는 32살인데도 지능이 어린이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찰리에게 어느 날 꿈같은 일이 생긴다. 저명한 대학교수가 그의 지능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해온 것이다. 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보고서를 쓰고 테스트를 받는 것. 테스트의 경쟁상대는 그가 막히게도 '알게논'이라 불리는 하얀 생쥐였다. 그러나 찰리는 뇌외과 수술로 초지능을 갖게 된 알게논에게 기묘한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수술은 대성공. 드디어 찰리는 주위의 탄성을 받으면서 천재로 빠르게 변모해나가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런데 자신보다 먼저 수술을 받았던 생쥐 알게논에게 이번이 생긴다. 찰리는 천재의 직관과 치밀한 분석력으로 알게논에게 생긴 변화를 해석해낸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알게논에게 일어난 변화는 얼

진정한 행복의 가치란



마 뒤 찰리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다. 육체와 정신의 급격한 퇴행작용이 시작된 것이다. 이 소설은 과연 많은 지식의 섭렵만이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존 스타인벡의 '생쥐와 인간'에서 영향을 받은 작가는 빵가게 점원 찰리를 통해 성취 지향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인 사회 속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매몰되는 과정을 그렸다. 나는 그 책을 읽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젊은 서울생활을 접고 다시 광주로 내려와 연극무대에 복귀했고 지금까지 한 길을 걷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 '찰리'가 물질적 가치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나를 정신적 가치의 세계로 회귀시켜 준 셈이 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9월, 나는 다시 그 소설을 만났다. 10월이 있을 공연 작품으로 연습 중에 있는 연극이 바로 작가 '키이즈'의 소설 '알게논의 무덤 위에 한송이 꽃'에서 모티브를 얻어 희극으로 재창작한 작품 '바보 신동삼'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 이 소설을 읽고 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엔 연극을 통해 우리 극단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새롭게 조망하고 있으니 참으로 필연적인 운명이라 여겨진다. 어렸을 때 간직했던 순수하고 해맑은 꿈들이 살아가면서 하나씩 깨지고 터럭터럭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그날 일상에 기대어 애써 외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그날 바보 상태로 있었던 시절이 천재로 변모된 순간보다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수하고 해맑았던 꿈의 회귀를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연 행복해지고 싶을 것인가? 무수한 것들을 소유하고 향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진정한 행복인가? 오늘 나는 16년 전에 만났던 소설 속 주인공 '찰리'와 찰리 알게논'을 연극의 주인공 '신동삼'을 통해 다시 만난다. 진정한 행복의 가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성완 (연극연출가·보성공연예술촌 연비람 총장)



Advertisement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Cinema, and Mudeung극장. It features movie listings for various theaters, including titles like '사랑' (Love), '인베이션' (Invention), and '상사부일체' (The Three Musketeers).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howtimes, and promotional offers for each theater.